



2면

'전북의 별, 벤처투자 여행' 개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음 10월 5일) 제36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학년도 대입 수능 대비 '이상無'

전북자치도교육청, '14일 시행' 수능 준비상황 안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 운영... 총1만7041명 응시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 28명... 완주 시험장 신설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실 응시... 마스크 착용 권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생은 전년보다 236명 증가한 1만 7,041명이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이 2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24명 축소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완주군 내 시험장 학교가 신설돼 그동안 완주지역 수험생의 원거리 응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확진자도 일반시험실에서 다른 수험생과 함께 응시한다. 다만, 확진자나 호흡기계통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상반기에 수능 시험장을 확정, 8월부터 방송시설을 포함한 시험장 전수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포함해 11월 최종 종합 점검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국장, 교육장, 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능 관리본부를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 주간에는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대응 및 각 상황실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수능 시행을 위한 인력도 4,100명 배치했다. 수능 운영 및 시험실 감독관 약 3,700명, 과견감독관 66명, 경찰관 277명, 소방안전관리관 67명 등으로 이들은 시험 관리 및 감독, 문답지 호송, 시험장 보안, 수험생 안전 등 시험 운영 전반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감독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운영한다. 수능 전주인 4~8일까지를 담당자 역량 강화 주간으로 정해 과견감독관, 교감, 교무부장, 방송담당자, 진학부장, 방송담당자 등 대상별 전문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개인시험실도 마련했다. 또한 모든 시험장에 보건실과 예비시험실을 설치하고, 보건교사와 응급구조사, 경찰관, 방송담당자 등 대상별 대비하기로 했다.

끝으로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해 경찰청, 전북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통 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예비소집은 13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컨디션 유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

4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현대자동차와 SK플러그하이비스, 에스모빌리티, 원익머트리얼즈 등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심장, 전북 완주에 뒀다'

국내 최초·최대 '수소용품 검사 인증센터' 문 열어

수소용품 4종 성능·안전성 평가, 검사장비 73종 도입 검사·인증, 전문교육 시행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가속화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이 완주에 구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은 4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고, 수소용품의 체계적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현대자동차와 SK플러그하이비스, 에스모빌리티, 원익머트리얼즈 등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소식은 주요 인사의 축사와 센터 건립 경과보고, 상징식 제막식, 그리고 센터 내부 투어로 진행됐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2021년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며 추진되었으며, 총 499억원이 투입되어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부지(3만276㎡)에 연면적 7,760

㎡,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 센터는 수소용품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센터는 수소용품 4종(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의 성능평가와 법정검사를 위한 73종 148점의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수소용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증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센터 개소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수소산업의 안전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완주에 마련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 분관증 △시험을 위한 시험동 △제조사 지원 및 교육을 위

한 고객지원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시험·검사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는 물론, 혁신기술 개발의 거점으로도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전북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기준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용품 수출 확대는 물론 수소산업, 수소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점이자 될 것이며, 전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수소경제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를 비롯한 수소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완주가 국내 최고의 수소인증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성 확보는 필수 요소로, 이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전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북이 수소 경제의 중심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읍성